

우크라이나

- 김교역 주순 선교사

전쟁의 초기부터 적들의 침략과 공격으로 모든 기관 시설물들이 망가져서 물, 전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들마다 찾아가서 식료품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전쟁 중임에도 선물로 주신 끼이브 선교센터

건물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매일 150-200명들에게 하루 한끼의 식사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야하지만, 식사를 위해서 온 이들을 볼 때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 말씀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땐 보람이 있고, 음식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순간순간 느끼며, 저희들을 새롭게하십니다.

지난 7/2-5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타디를 캔디데이트들과 팀멤버들 150여



2024년 8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0개국 329명 (자체 파송 79%)

GRACE 선교소식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한여름 성경집회 마지막 설교는 "사명! 멈출 수 없는 불 선교!(사6:2-8 ; 시133:1-3)" 존재의 목적은 예배이다. 선교의 사명이 유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세대의 사명을 두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부모 세대는 호렘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기름을 모아 다음 세대에도 사명이 멈추지 않도록 선교의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갑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의 다음세대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 G.T.D #203기(남성)(8/18-8/21)
- > 어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9/9-9/13)
- > 베트남 TD #3기 (10/22-10/25)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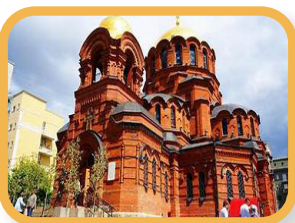
노보시빌스트

- 김경순 선교사

지난 주일 저희 노보시비르스크 은혜교회가 창립 15주년 맞아 감사예배를 건축 중인 새 건물에서 드렸습니다. 교회건물이 완공된것은 아니지만 지하층이 먼저 공사가 끝나 식당으로 사용될 장소를 본당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예배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장소는 식당의 기능 뿐 아니라 인카운터를 비롯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로도 사용하려합니다. 이번주 안으로 본당 공사를 시작 하려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내어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교회가 완공이 되고 이곳의 상황이 안정이 되는 날 한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예배를 드리고 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응답하실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이 부족한 여종을 불쌍히 여기사 고비 고비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혼자자 아니라 위로와 힘주셨던 한기홍 목사님과 본 은혜교회의 중보 기도팀들과

인도

- 한OO 손OO 선교사

2박 3일 동안 방과후 학교 하는 마을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마을의 한 주민의 방해로 장소가 변경되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로 께안아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ETI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고, . 함께 치킨 비리 아니 음식을 먹으며, 이 마을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는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로 위험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즌을 지나 한국어 수업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총장님과 담당코디네이터 교수님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실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복음의 접촉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오 프라인 수업을 받기며, 또한 기존 온라인 선호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온 오프라인 동시수 업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사용이 가능한 강의실을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들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마을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에 열심히 참석하고 고대하던 달란트시 장을 가졌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ETI 영어도 가르치며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역자 씨나가 'MY 어린이 집'을 열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일과가 마치면 매주 수요일 저녁에 전도한 몇 가정이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통해 타 종교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라크 조셉 김 선교사

신장결석 수술을 미국에서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수술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빠른 수술을 하기 위해 8/15에 한국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8/20일 외래 진료후, 8/20일 입원을 하여 8/29일 수술하고, 8/30일 퇴원, 9/10-9/13 외래 진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강하게 완쾌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할린 김성용 김지수 선교사

이곳 사할린의 선교사역은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어깨를 심하게 다친데다 여기서 겹친사고로 양쪽어깨의 각각 3군데 힘줄 봉합수술이 불가피 하여 우선 오른쪽만 8월말에 수술과 재활과정이 필요한데 5개월이 소요된 다 합니다. 좀 까다로운 상황이라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1차로 오른쪽을 먼저하고 8개월후 2차 왼쪽수술 하자고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N국 장OO 씨OO 선교사

1.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것들 속히 이루시고 종전이 되도록
2. 소그룹으로 시작한 3군데의 난민학교 학생들이 잘 성장하여 어린학생들을 가르치는 재생산을 위하여
3. 미국 Gateway Seminary CLD 프로그램에 지원한 11명의 이 난민 신학생들의 2년간의 무탈함을 위하여 4. 난민 청소년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감당하는 아내 사역자가 지치지 않고 건강하도록

타타르스탄 주선민 선교사

한국에서 갑상선 암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이 잘되어서 빠른시간안에 사역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방글라데시 광OO 김OO 선교사

폭도들이 동네와 교회를 파괴한다는 소식으로 선교사님과 그곳 사역자들도 동네속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동네사람은 혹 폭도들이 올지몰라 자체 민방위가 밤새 지킨다고 합니다.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샤카르마 대학의 바쁜 입학시

파나마

- 김재한 그레이스 선교사

6월에는 온라인 신학교 새학기 로마서 강의가 한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번 새학기에는 10명의 신학생들이 새로 입학하였습니다. 재학생 6명에 모두 16명이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위해 일부 참석했습니다.

6월 마지막주에 은혜한인교회 EM청년들이 선교지를 방문해 정글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VBS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그리고 리더들이 한마음으로 돕고 독층에 물리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에스페란사마을 생수의강 교회건물 건축은 우기 가운데에서도 후방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 페인트를 올려 보내고 다음주에는 선교사가 방문해 마지막 마무리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8월말에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해 헌당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치(전기가

없음), 화장실, 의자 제작등을 인디안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축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재 기숙사건물이 완공됐고 그 옆으로 화장실, 샤워실, 빨래방이 건축중입니다. 이번달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달부터는 식당,부엌 건물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비노가나마을 베다니교회, 삐히바살 마을 생명수 교회, 까제 라르고마을(교회 개척준비)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의 중앙 기적교회들을 7월 한달 돌면서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 김광석 이영미

5월 마지막날 총동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못 왔지만 그동안 못 나오거나 출석이 들쭉날쭉 했던 친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암송게임으로 선물도 받고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 성경 공부를 다시 열려고 합니다. 몇주간의 방학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나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더 복음을 상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 모임이 부담이 아닌 신나고 재미난 모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며 믿음의 싹을 키워 나가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방 전도는 어디서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해가 너무 뜨겁고 또 우기에는 갑자기 비가 들이칩니다. 노방전도 하는 동안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며, 우리의 입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틀어질 때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 않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

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과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다시금 힘을 얻고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걸사람은 날로 쇠퇴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있습니다. 언어습득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부기간 동안 스페인 출신인 천주교 선교사님과 교제하며 신앙적인 부분을 나누고 이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해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니 보다 깊은 신앙적인 이야기가 쉽지 않지만 주께서 이분을 만나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곳에 한국 선교사님 가정에서 세우신 SANSOUK SCHOOL(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이 있습니다. 9월부터 이곳에서 비자문제도 해결하고 교사로 한국어나 중국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중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비자 문제도 잘 해결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오스

- 천00 이00 선교사

지난 3월 초에 이곳 라오스에 도착한 후로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오스어 언어과정 LEV-EL 1을 7월 초에 마쳤습니다. LEV-EL 2 과정이 9월 중순에 시작되는데 저희는 방학 중에 열리는 7주 과정에 등록하여 계속 공부를 이어가고

우리에게 주고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1분단상 130-8월호>

-김대규 장로

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강하고 무한하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끝까지 포기치 않고 기다리신다. 공홀과 인내와 자비가 동반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절도와 질서가 명확하다. 무작정 참아내고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를 말해 준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서슴없이 독생자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다(요3:16). 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 사랑이 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4-40)는 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연결된다. 믿는 자의 삶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요일 4:7-8). 옛 구약인들이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했듯이 우리도 마음판에 새겨 각성하면서 살아야 한다.



무엇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사랑이다. 구약시대 시절 하 나님의 백성이 세속화와 우상숭배에 젖은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벌과 용서가 반복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새로 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일4:16)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35)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사랑(아가페)"이라는 실천적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아가페)"이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밖에 없는 테두리안에 담겨져 있다. 이 테두리는 변치 않는 진정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미리 계획하신 "구원의 성취"라는 감추었다가 밝혀진 비밀로(엡1:9)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하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된 목적을 향해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의 모습으로의 회복, 진정한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다. 이 원동력이 "사랑"

성령이 앞 서고, 희생보다는 내 유익을 구하고, 참음보다는 다툼이, 진실보다는 가식이, 이해보다는 오해와 편견이, 겸손보다는 자랑과 교만이, 용서보다는 갈등이 앞서며, 의로움보다는 세속적이고, 진리를 앞세우나 허구이며, 행함보다는 말뿐인 모습이 오늘의 나의 자화상인 것이다. 나 혼자인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고도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선자가 아닐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하는 체질로 우 변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이 원하시는 아카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 앞에 충실한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인 것이다. 어떤 이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필레 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했다. 이리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가페"를 이루며 살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아가페"를 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 신 것"이다. 부족하지만 진실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 시어 그분의 사랑이 우리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 페"사랑으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 는 모든 것이 주안에서 하나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이다. 고 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 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 이 라"(요일4:7-8)고 말이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주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고로 모두가 주안에서 있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의 실상은 어떠한가. 주님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거리가 멀다. 사랑한다면 서로 편협하고, 무례하고, 시기하며, 인내보다는 판단이, 너그러움보다는